

“통합의 핵심은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전남”

■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쟁점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인 ‘5국 3특’ 추진에 발맞춰 최근 ‘광주·전남행정통합’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새해벽두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가야할 길이라면 새 정부의 국가생존전략에 따른 전폭적 지원이 뒤따르는 지금이 최적”이라며 ‘대한민국 1호 통합특별시’를 목표로 통합논의를 적극 주도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내용과 국가의 목표에 대해 들어본다. /대담=이박형 미션21 주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가 광주전남 통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고 계시는지?

올해로 정치를 시작한 지 25년입니다.

광주·전남 통합은 그동안 품어왔던 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까지 가슴이 떨린 적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체계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지난 1월 2일 행정통합 공동 선언을 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의 특별법을 준비하는 한편, 교육행정통합 추진단까지 꾸리며 하루를 한 달처럼 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수도권에서 광주·전남으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과거 미국 러스트벨트에서 선벨트로, 실라콘 벨리에서 아리조나와 텍사스로, 독일도 루르 지역에서 바이에른으로 성장의 축이 이동해 왔듯이,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광주의 AI 생태계와 전남의 재생에너지가 결합한 광주·전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 통합의 시점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지금의 말 그대로 ‘기회의 창’이 열린 시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한 광주·전남에 무리를 해서라도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역 산업을 키울 ‘연간 5조 원’의 파격적 지원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 특별시’로 과감히 나누는 분권도 선언하셨습니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지금의 국정 기조와 분명히 맞닿아 있는 국가생존전략입니다.

첫째,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오랜 시간 준비해 왔고, 전남은 재생에너지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셋째, AI시대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났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은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 실패를 겪은 과제입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는 미뤄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

▲ 이번 통합은 지역의 구조를 바꿀 중대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도민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변화는?

광주·전남 통합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전남입니다. 핵심은 ‘청년’과 ‘일자리’입니다. 산업·인구·재정이 하나로 묶이면서 투자 유치, 기업 이전, 산업단지 조성 같은 산업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머지않아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소득,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의 통합이 광주가 광역시로 도약하는 물리적 토대였다면, 지금 전남과의 통합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함께 넘고, 산업육성이라는 기회를 잡을 화학적 융합인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축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은 통합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통합은 광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이자, 동시에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가장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 민선8기 마지막 해인데, 핵심공

‘광주 AI생태계+전남 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축 이재명 정부 국가생존 전략 따른 전폭적 지원 “지금 최적”

광주교계, 민주주의 위기 때 먼저 나섰고 주요 시정현안에 큰 힘

▲ 일각에서는 광주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광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통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광산군

악은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취임 당시 ‘5+1’ 광주의 오랜 숙제를 약속했습니다.

①북항소풍길 유지, ②전방·일신 방직 부지 개발, ③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④지산C 진출로 개통, ⑤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① 군공항 이전입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과 함께 북항소풍길 유지를 이뤄냈고, 17년간 포류하던 어등산 개발도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가장 어렵다고 여겼던 ‘41’(군공항 이전)도 6자 협의의 화의를 통해서 꼭지를 따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후 3년 반, 공항 이전 논의의 시작 후 18년 민의 성과입니다.

AI와 미래차 분야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가AI융합센터유지가 불발되며 큰 아쉬움이

또,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지정으로 광주는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세계 최고 반도체 인재양성 기관 〈Arm스쿨 유치〉, 광주 지역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까지 이어지며 말 그대로 전라위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129개 공약과제 가운데, 95.5%가 정상추진 중으로(‘25.8.30. 기준), 분야별로 꼼꼼히 공약 이행을 챙기고 있습니다.

▲ 미션21 독자와 우리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광주와 시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단체 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던 순간마다 가장 먼저 나서 주셨고, 국가AI융합센터 유지를 비롯한 주요 시정 현안마다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기도 위에서, 광주

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AI·반도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도시로, 광주권 복원과 공원 조성을 통해 녹지가 풍부한 도시로, 북항소풍길과 특급호텔이 어우러진 문화·여가 도시로, 도시철도 2호선과 광천상무선이 연결되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자본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광주의 목은 현안들을 해결되고, 부강한 광주를 넘어 부강한 광주·전남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열린 때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뛰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추진의 타임리인

- 01월 02일 광주·전남 통합추진 공동합의문 발표
- 01월 0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 01월 12일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추진단 구성
- 01월 13일 광주·전남 시도지사 및 교육감 간담회
- 01월 14일 특별법 입법간담회 및 입법 공청회
- 01월 16일 국무총리 특례발표
- 0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광주전남 통합추진 향후목표
- 02월 중 특별법 국회 의결
- 06월 03일 통합특별시장 선출
- 07월 01일 통합특별시장 출범



새정부 출범과 발맞춰 실시한 2025 광주대전환 정책포럼



광주를 방문한 유원식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imsTV (ims 21.tv)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 '송안의 신문'

-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 가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종이신문의 모든 콘텐츠와 기사 및 광고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 하루 더 빨리 보는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신문보다 하루 앞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배포되는 토요일에 앞서 금요일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기사·일반 정보·성경말씀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기사 검색은 물론, 다른 포털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 정보와 성경말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미션21은 종이신문이 갈 수 없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